

네 마음의 법당 (하)

장진익 (전북 부안군 계화면)

나를 불교로 이끌어 준 서 병장이 제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니 '내가 이렇게 이기주의자였나?' 라는 자책이 들었다. 서 병장으로 인해 군중병이 되었고, 군중병이라는 특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부대원 모두를 위해 희생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정신적 휴식처를 제공해주라는 것인데 나는 나의 안락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 부끄러웠다.

행정반에서 서 병장의 연락처를 받아 그에게 전화했지만 결번이었다.

법당을 쓰고 두고 법사님을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힘든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전우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나의 우선적인 임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 나의 머리 속엔 온통 그 화두로 가득 찼다.

그러다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대 밥이야 밥!"

군대 밥이 아무리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어찌 어머니가 정성껏 해주신 밥에 비교할 수 있을까. 나는 법사님의 허락을 받고 일요일 법회가 끝나면 법당을 찾은 전우들에게 손수 공양을 올리겠다고 청했다.

"끓이며 반찬은 한정돼 있는데 어디서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나?"고 법사님이 물었지만 "다 생각이 있으니 맡겨 달라"고 말씀드렸다.

군 입대 전 나는 과외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푼푼이 모아 둔 저금이 있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전우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기로 결심했다.

요리를 잘 하진 못하지만 전우들의 입맛에 맞게 쌀과 소시지 등 기쁠기 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일요일 법회가 끝난 후 공양했

다. 또한 평일 제조작업을 하는 전우들에게는 가끔씩 라면을 끓여 간식으로 대접했다.

비록 큰 선행은 아니었지만 이런 나의 공양은 인소문을 타고 중대에 퍼지면서 일요일마다 법당을 찾는 전우들이 하나 둘씩 늘어났다. 준비해야 할 밥그릇이 하나씩 늘어날 때 마다 내 마음의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그릇도 하나씩 늘어나는 기분이었다. 법회를 이끄는 법사님도 환하게 하는 눈치였다.

전우들은 일요일뿐 아니라 평일 근무가 끝나면 법당이 마치 내부인양 편하게 들

수치가 부족해지면 작은 부딪침에도 시퍼렇게 멍이 든다.

술을 조금만 마셔도 속이 쓰려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혈액검사를 통해 혈소판감소증이란 진단을 받은 것이다. 검사결과 나의 혈소판의 수치는 8만개였다. 한 달 후에 다시 검사 받으니 5만5천여 개로 더 떨어졌다. 혈소판의 수치가 2만개 이하로 떨어지면 코피를 쏟고 온몸에 멍이 든다고 했다.

대학교에 복학한지 몇 달 되지 않아 이러

음식 공양, 상담자 역할하며 군 포교 열심

복학과 함께 희귀병 걸려, 108배로 극복

고통후 활기찬 삶, 타인에 도움줄 것 확신

렸다. 가끔은 내가 상담자 역할도 해야 했다. 여자친구 문제, 진로문제 등 상담거리도 다양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형처럼 의지하고 따랐던 서 병장이다. 서 병장으로 인해 군대에서 정신적 안정은 물론 마음의 평안도 찾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 탈없이 전역하고 나자 다른 시련이 다가왔다. 혈소판감소증이라는 희귀한 질병에 걸린 것이다.

일반인들은 혈소판의 수치가 15만개에서 40만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이는 신체의 충격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피의 한 구성요소다. 이러한 혈소판

한 어려움을 당하니 나의 삶은 혼란스러워졌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법당을 찾았다. 대학생불교연합회 동아리방을 찾아 매일 108배를 올렸다.

그것은 어떤 대상을 위한 절이 아니었다. 단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밤 10시. 어두운 밤에 홀로 촛불을 켜놓고 정근을 했다. 지독한 감기까지 걸려서인지 108배를 올릴 때마다 숨이 찼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렇게 좌선까지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구쳤다.

나의 노력을 부처님이 아셨을까? 나를 괴롭혔던 몸살감기는 씻은 듯 사라졌다. 얼마 후 다시 혈소판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도 매우 좋았다. 혈소판의 수치가 9만개로 늘었다는 것이다. 한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혈소판 수치가 9만5천개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담당 의사는 혈소판의 수치가 점차로 감소했다면 혈소판감소증으로 흡수검사까지 할 뻔했다고 말했다.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

또 한 번의 어려움을 이렇게 겪은 후에 나의 생활은 더욱 활기로 가득 찼다.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노력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갖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강한 의지로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된 것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지금 나는 취업준비생이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중이다. 취업준비생이 초비상이라고 뉴스나 신문에서 떠들어대고 있다. 하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고통도 극복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쌀쌀한 가을이 오고 온몸이 시리도록 추운 겨울이 와도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날 반겨줄 따스한 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은 언제나 행복할 것이다.

이제 군대를 제대 한지 3년째. 문득 문득 군중병 시절을 떠올려 본다. 마음의 위안과 안정을 찾기 위해 법당을 찾았던 나.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는 종교를 찾지 않다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종교를 찾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또 부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남을 위해 기도하고 절을 찾고 교회를 찾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종교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볼게 된다.

군중병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법당 안의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 소원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부처님은 법당에도 계시지만 내 마음 속에 계시는 부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끝)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이 일어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상쾌한속면 신비의은행석

건강한하루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배개볼 1인용 25,980원 → 45,000원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에서는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아에다 수돗물을 받아 붓어넣으면 붓어는 배를 뒤집고 활짝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붓어는 씩씩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등 이외의 죽어가는 것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 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

무서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신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손발이 자주 붓는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25,980원 → 95,000원

◆ 목걸이, 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이 붓거나 어깨결림 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기를 골고루 전달, 심장박동원활, 신진대사촉진, 신경 및 피가 맑아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아요.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들의 사용 후기적결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사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난도록 구성됨. 운문(운운)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원복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연의 사물장단 (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전도집 증정)

천도재 비디오 3개 (대령, 관속, 사식, 배송) 완벽한 방송용 자막 커리. 활인가 6만원

☎ 합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만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신비의 침술 대공개

불임증, 발기부전, 만성두통, 견항통, 오십견, 요실금, 구완외사, 이명, 비염, 중이염, 천식, 아토피 피부병, 요통, 좌골신경통 (디스크), 풍치, 무릎관절통, 손 발목 관절통, 만성체증

비결침술로 1회 ~ 6회만에 완치되는 비방

초보자 누구라도 1시간만 배우면 **대침술가** 전문의가 될 수 있다

비법강좌

※ 선착순 10명, 숙식 제공함 ※

- 일 시 : 9월 23일 ~ 9월 24일
- 보시금 : 일백만원(선입금 미리예약)
농협 457109-52-098389 총정수
- 오시는 길 : 공주시에서 청양가는길 13km 오셔서 공수원 4거리 하차(신동명 쪽) 900m 좌측 대나무 있는곳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 **천제 불국사 의성 협정**

전화 041-855-7114, 016-552-2159

나무 묘법 연화경

시대에 맞는 생활불교의 지평을 여는 신종단으로서 중도(스님) 및 법사, 전국 각 지역 중무원을 모집합니다.

년령, 학력, 출가이력, 경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법사 및 행사는 연령과 남,여 관계없이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여 수계함

묘법 연화경으로 각종 예법 및 의식을 무보시로 가르쳐 드립니다.

대한불교 묘법 연화종
총무원장 만오 연해광 합장

- 총무원 : 창원시 중앙동 70-9번지
- 문 의 : (055)263-4984, 018-432-4984

생활철학 강자 학인 모집 (책임지도)

명리, 성명, 관상, 육효, 풍수지리

- 강 사 : 만오스님(현 창원 전문대학 강의중)
- 대 상 : 스님
- 모집인원 : 20명
- 보 시 : 50만원
- 접 수 : 9월 30일까지
- 강 의 : 10월 1일부터 - 10월 30일까지 (부족한 스님은 날짜와 관계없이 알려주세요)
- 문 의 : (055)263-4984, 018-432-4984

정통 철학의 맥을 이어온 학문, 우주의 근본원리를 탐구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알게되면 부처님의 12인연법은 물론 운명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님은 신도들의 상담에 필수적인 것이고, 우주의 이치로 실로 정연하여 한치의 착오가 없는 만고 불변의 학문이요, 대도(大道)라 할 수 있다. 즉 철학은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다.

창원시 중앙동 70-9번지 성한빌딩 4층 묘법정사